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구역회가 열립니다. 구역회 참석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여선교회에서 다음 주일에 떡국 떡을 판매합니다. 2.8kg에 만원입니다.

담임목사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연회 감리사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생활합시다. 건강도 지키고 과도한 난방을 줄여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 당 봉 사 :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정복순
 1/29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안수 이윤석 문복순
 오늘설거지봉사 : 이윤석 박안수 정운성 서효진
 다음 주 설거지 : 없음
 새 교 우 : 박종원 (5남) 이우원(4남) 송지희(청) 오재은(7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겨울 추운 날씨 가운데도 따스한 햇살 한 자락 예비해 주시고, 시끄러운 소음 가운데도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작은 예배의 자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마다의 욕망에 사로잡혀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그릇된 욕망의 허울을 벗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숙	고숙이	곽새롬	롬순	구명자	권혁순	순해성	박경한	김경수	수순환	김기세	석용선	김연희	우실훈
김남종	오복영	김명진	김순화	이보영	김미일	김성은	김한옥	김영조	김재우	김진우	김선덕	김재준	최호우
김용길	최영희	김영희	김정희	김종훈	김종현	김희정	김영희	김재준	김재우	김진우	김선덕	김재준	최호우
곽혜자	곽혜자	박재민	박재민	문복순	문복순	문복순	문복순	박혜성	박혜성	박혜성	박혜성	박혜성	박혜성
류건형	류건형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옥식
박근수	박근수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김순숙
배안길	배안길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윤미경
최윤선	최윤선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이단자
신영선	신영선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전명자
정경례	정경례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조병익
송양진	송양진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조정석
최은미	최은미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최종원
한완식	한완식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홍춘숙	홍춘숙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황영준

감사헌금:

김경수	김필순	민병배	문현미	박창운	허정윤	서원금	송동준	김진경
신진식	변혜정	오재은	이유일	김미희	이준림	이진희	안준용	이춘재
장윤지	정지윤	조관행	조병우	송양진	조소영	채효순	한기택	허정호

녹색꿈헌금: 박병구 김정애 김용진 박효선 전 용 곽새롬

생일헌금: 이미혜 이은자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박성희		
	최희영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박혜경	조항미		
	김재홍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손성현	곽상준		

마음으로 읽는 글

굿모닝

문인수

어느 날 저녁 퇴근해오는 아내더러 느닷없이 굿모닝! 그랬다.
 아내가 웬 무식? 그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후 매일 저녁 굿모닝. 그랬다. 그리고 싶었다.
 이제 아침이고 대낮이고 저녁이고 밤중이고 뭐고 수년째 굿모닝, 그런다.
 한술 더 떠 아내의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여행을 떠나거나 돌아올 때도 예외 없이 굿모닝, 그런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축하한다 해야 할 때도
 고저장단을 맞춰 굿모닝, 그런다.
 꽃바구니라도 안겨주는 것처럼 굿모닝, 그런다.
 그런데 이거 너무 가벼운가, 아내가 눈 흘리거나 말거나 굿모닝, 그런다.
 그 무슨 화두가 요런 잔재미보다 더 기쁘냐, 깊으냐.
 마음은 통신용 비둘기처럼 잘 날아간다.
 나의 애완 개그, ‘굿모닝’도 훈련되고 진화하는 것 같다.
 말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민망하고 시끄러운 경우도 종종 있다.
 엑기스, 혹은 통폐합이라는 게 참 편리하고 영양가도 높구나 싶다.
 종합비타민 같다. 일체형 가전제품처럼 다기능으로 다 통한다.
 아내도 요즘 내게 굿모닝, 그런다.
 나도 웃으며 웬 무식? 그런다.
 지난 시절은 전부 호미자루처럼, 노루꼬리처럼 짚막짚막했다.
 바로 지금 눈앞의 당신, 나는 자주 굿모닝! 그런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일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랑의 주님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사랑의 순례길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늘 양의 입장이 되어 받을 사랑만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시는 사랑의 순례길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에스겔서 / 김재홍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안 현 선생
	김기석 목사	김재홍 목사	하정석 집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바람이 빗어낸 폭낭의 미학

1932년 해녀 투쟁을 다룬 현기영의 소설 제목은 <바람 타는 섬>이다. 너무도 적절한 제목 아닌가. 혹시라도 제주도를 따스한 남쪽 나라 정도로 안다면 오산이다. 평균기온이야 따스하지만 속살까지 파고드는 매운 바람은 체감온도를 가차 없이 떨어뜨린다. 칼끝 바람에 눈발이라도 날리면 앞길이 묘연하다. 그러다가도 햇볕이 쨍하는가 하면 다시금 눈 오고 바람 분다. 이튿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은 자취도 없이 녹아버리고 바람이 잦아들어 봄기운을 풍긴다. 여우가 하루에도 수십 번 시집가는 섬이 제주도다.

기후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여 변화무쌍하다. 바람은 따뜻한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심히 날카로워 사람이 입고 먹는 것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병나기가 쉽다. 게다가 구름과 안개가 항상 자욱하여 갠 날이 적고, 눈먼 바람과 괴이한 비가 때도 없이 일어난다. - 김정, <제주풍토록>

한라산 북사면은 북풍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남향으로 심하게 편향되어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해수가 비 오듯 흘날리고, 해안의 초목들은 모두 소금기에 절어 있을 정도이다. 한라산 북쪽은 강한 바람으로 하늘과 바람이 뒤집히는 듯해도 남쪽은 세초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약하다. - 임제, <남명소승>

임제의 기록은 편향수(偏向樹)와 조풍해(潮風害), 바람의 지역 차 등을 잘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곳곳에 바람 타는 나무들이 서 있다. 이른바 풍향목(風向木). 김수영의 시 <풀잎>에 바람이 불면 잠시 엎드리는 풀이 등장하지만, 풍향목은 아예 엎드리기를 거부한다. 바람에 맞서는 행위는 그 저항의 강도만큼이나 충격도 크다. 그래서 저항하던 나무들은 일제히 바람 반대방향으로 몸을 굴절시켜 스스로 풍향목으로 변신해야 한다.

풍향목의 대표격은 폭낭(팽나무)이다. 제주도 어딜 가나 폭낭이 서 있다. 폭낭은 주로 신당과 정자나무로 쓰였는데 육지로 치자면 느티나무쯤에 해당될까. 폭낭은 쉽게 썩는 속성 때문에 뿔감이나 솥을 굽는 데나 썼다. 제주도 출신이라면 어릴 적 폭낭 열매를 먹어본 경험이 있으리라. 폭낭 이야기를 했더니 송당 출신 박경훈 화백이 회고담을 들려주었다.

“내 살던 동네에도 큰 폭낭 한 그루가 있어 여름철 내내 아이들은 폭낭을 기어오르며 열매에 취하여 더위를 잊었지요. 나무 한 그루가 온 동네 아이들을 한여름 살려줬지요.”

이쯤 되면 폭낭의 목재 효용성과 무관하게 제 역할은 충분히 한 것이다. 폭낭은 강인한 제주 정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추위와 염분에 강하고 무엇보다 바람에 강하다. 바람에 나무가 꺾이면 그 자리에서 다시 움이 솟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한쪽으로 쏠리다 못해 거의 기울어가는 형상인데, 그러면서도 용케 중심을 잡고 완강하게 버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에 제주도 폭낭은 대체로 바다에서 한라산을 향한다. 한마디로 제주도 폭낭은 ‘폼 나는 나무’다. 바람으로 인한 고통의 대가로 멋진 나무가 된 것이다. ...

제주도 바람은 무섭고 섬뜩하기도 하다. 바람이 가장 강한 한경면 고산리의 최대 관측 풍속은 초속 60미터. 아름드리나무가 순식간에 뿌리 뽑히는 가공할 위력이다. 비양도 같은 협재의 앞섬에서 건너오는데도 돌풍이 불어 난파하기도 한다. 영조 38년(1768) 9월에 포한(어부) 42명이 비양도에서 공납에 소요될 대를 베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을 만나 배가 뒤집힌 사건을 보면 ‘코앞에서 엎어진다’는 말이 실감된다. 태풍은 수시로 제주도를 들이친다. ...

바람은 특히나 오름에서 강하게 감지된다. 몸 가릴 곳이 없는 오름에서는 늘 바람이 차다. 셋별오름을 오르니 무덤가에 억새꽃이 만발하였다. 셋별오름은 최영 장군이 황포와 반란을 일삼는 목호(牧胡)의 난을 진압한 곳이다. 죽은 영혼들이 일어서려는가, 힘차고도 힘차게 억새꽃이 흔들린다. 마라도 풀밭에서는 간간이 썩부쟁이도 만난다. 워낙 바람이 강한 바람코지라 키가 자라지 못하여 불과 몇 센티미터 높이에서 꽃을 피워낸다. 현실에 적응하는 강한 생명력이 경이롭다.